

ORIGINAL ARTICLE

## 가야산 국립공원의 이해집단 간 환경태도 비교

한재경 · 우형택<sup>1)\*</sup>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sup>1)</sup>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부

### Comparison of Environmental Attitude between Interest Groups in Gayasan National Park

Jae-Gyeong Han, Hyung-Taek Woo<sup>1)\*</sup>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Landscape Architecture, 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buk 38430, Korea*

*<sup>1)</sup>Faculty of Environmental Science, Horticulture and Landscaping, 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buk 38430, Korea*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compare environmental attitudes of interest groups, including visitors, local residents, Buddhist monks, and staff of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in Gayasan National Park. To achieve this purpose, five hypotheses were formulated and tested. While three hypotheses were statistically rejected, two were accepted. In every interest group, the environmental attitude level of women was higher than that of men. Local residents particularl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occupation. The difference in environmental attitude between visitors and local resident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the environmental attitude level between interest groups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staff of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showed the highest level of environmental attitude, followed by Buddhist monks, and a group of visitors and residents recorded the lowest. However, the average level of environmental attitude of every interest group scored above the mid-point of 3.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exists no difference between or conflicts among interest groups related to strengtheni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i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Gayasan National Park.

**Key words** : Environmental attitude, Gayasan National Park, Interest groups, Comparison, Hypothesis, Statistical analysis

#### 1. 서론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보호지역으로 수려한 경관과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며 국민 여가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Woo et al., 2017).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총수는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을 이

후로 2016년 지정된 태백산 국립공원을 포함하면 총 22개이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전년도(2006년 탐방객 26,786천 명) 대비 약 천만 명이 늘어나 53%의 탐방객이 급증하였고, 2016년 국립공원 탐방객수는 약 4,435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7).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이러한

Received 31 July, 2018; Revised 17 September, 2018;

Accepted 17 September, 2018

\*Corresponding author: Hyung-Taek Woo, Faculty of Environmental Science, Horticulture and Landscaping, 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buk 38430, Korea.

Phone : +82-53-850-3248

E-mail : htwoo@cu.ac.kr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탐방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생태계 훼손이 심히 우려되고 있으며, 국립공원의 보호관리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사찰지를 포함한 사유지가 32.55%(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7)로 지역주민, 사찰,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이에 보호와 개발의 정도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16). 국립공원을 둘러싼 갈등은 이해집단 사이에서의 개발과 보전 그리고 보전에 따른 규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발생하며, 이러한 갈등의 해결은 단기간의 어떤 집단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조정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다(Ahn and Byun, 2013; Kim, 2017).

이러한 환경보호와 관련한 갈등 해결에 있어서는 개인의 환경보호에 대한 지식, 신념과 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Cheong, 2007). 국립공원 내 자연 문화자산의 이용과 보존 보호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지지 확보가 필요하다(Ryu et al., 2016). 따라서 국립공원 내 자연보호와 이용의 갈등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이해집단 간의 환경태도와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Woo et al.(2017)이 수행한 주왕산 국립공원의 이해집단 간 환경태도 비교의 후속 연구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야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탐방객, 지역주민, 사찰 스님,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이해집단 간 환경태도를 비교, 분석, 고찰하여 가야산 국립공원의 보호 정책과 관리 방안의 기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환경태도의 정의

태도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Fishbein and Ajzen(1975)의 정의를 받아들여 태도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Jang, 2001). Kim(2015)은 환경태도를 ‘환경의식에 기초한 인지적, 행동적 반응’이라 정의하였고, Kim et

al.(2014)은 생태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광지를 방문하는 행동에서 환경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oo et al.(2017)의 주왕산 국립공원의 연구에서 채택한 ‘환경보호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일반적 감정의 정도(Woo, 2003)’를 환경태도로 정의한다.

### 2.2. 선행연구 고찰

일반적으로 나이, 성별, 교육, 소득, 거주지, 그리고 정치적 성향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져 오고 있다(Van Liere and Dunlap, 1980; Brecker, 1984; Jo and Kim, 2003; Kim and Woo, 2004; Gifford and Sussman, 2012). 따라서 자연자원 보호 및 이용에 관련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Ahn and Byun, 2013; Ryu et al., 2016). 최근까지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특성과 환경의식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Yang and Ahn, 2008; Kim, 2011; Ryu et al., 2016) 이해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다. Kim(2014)은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의 지역주민과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환경의식 연구에서 탐방객이 지역주민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높은 환경중심적 환경의식을 지닌 것으로 보고하였고, 국립공원 관련 정책에서는 지역주민과 탐방객은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Yang and Ahn(2008)은 내장산 국립공원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환경윤리 및 환경의식을 분석하였고 탐방객의 환경의식 수준이 보통 이상이며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환경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지 않아 기존 연구결과들 간의 의미 있는 비교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Kum and Kim, 2009; Woo et al., 2017).

## 3. 연구방법

### 3.1. 조사대상지

연구대상지인 가야산 국립공원은 경상남도과 경상북도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76 km<sup>2</sup>로 1972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생물종수는 2만여 종으로 우리나라 기록 생물종수가 4만여 종인 것에 비교해 볼 때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야산 국립공원의 경우 우리나라 법보 사찰인 해인사가 위치해있어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가야산 국립공원 탐방객은 2016년 771,724명(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7)이며, 특히 탐방객의 방문이 많은 달은 4월, 5월, 10월, 11월이며, 그 합이 406,894명(52.8%)으로 봄과 가을에 방문이 집중되었다. 가야산 국립공원의 토지현황을 보면 사찰지가 37.54%, 사유지 23.96%, 국유지가 16.35%, 공유지가 22.15%이다. 전체 국립공원의(육상면적 기준) 사찰지를 포함한 사유지 면적이 32.55%인 것에 비해(Korea National Park Research Service, 2017) 가야산 국립공원은 61.50%로 사유지의 비율이 매우 높다.

###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Woo(2003)가 개발한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된 환경태도 측정도구를 채택하였다. 이는 앞서 Woo et al.(2017)의 주왕산 국립공원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와 동일하다. 설문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Short form으로 환경중심적 태도 문항 4개와 인간중심적 태도 문항 4개로 총 8개의 환경태도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이 측정도구는 환경중심적 태도 16문항과 인간중심적 태도 16문항 총 32개의 Long form의 환경태도 측정도구와 거의 같은 효과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이미 재검증된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이다(Woo, 2003; Woo et al., 2017). Short form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많은 문항을 포함하는 Long form의 설문지보다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조사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환경태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3.3. 조사 및 분석방법

조사 시기는 각 이해집단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조사자들이 참여 가능한 6월과 7월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2016년 6월 2일부터 7월 17일에 걸쳐, 가야산 국립공원 탐방지구 내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지역주민은 집단시설지구 내의 음식점을 포함한 상업시설 종사자, 지역 농협 근무자, 지역 경찰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사찰 스님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은 사전의 양해를 득한 후 담당자를 통해 조사하였다. 총 340부를 배부하여 285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

한 275부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인 SPSS ver.19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검증은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분석으로는 빈도분석을 하였고, 이해집단 간의 환경태도 비교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 ANOVA, 사후검정으로 Duncan test를 수행하였다.

### 3.4. 가설설정

#### 3.4.1. 가설 1: 여성의 환경태도 수준이 남성의 환경태도 수준보다 높을 것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여성의 환경태도 수준이 남성의 환경태도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ecker, 1984; Kim and Woo, 2004; Yang and Ahn, 2008; Gifford and Sussman, 2012; Kim, 2014). 설악산 국립공원의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경우도 여성의 환경의식이 남성의 환경의식보다 높았다(Kim, 2014).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보다 이타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Gifford and Sussman, 2012). 그러나 앞선 주왕산 국립공원의 연구(Woo et al., 2017)에서는 탐방객, 지역주민 모두의 경우 성별에 따른 환경태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국립공원에 적용해 본 첫 사례이므로 후속 연구에서 계속 검증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단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가야산 국립공원의 이해집단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환경태도가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해보기로 한다.

#### 3.4.2. 가설 2: 연령에 따라 환경태도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환경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Liere and Dunlap, 1980; Han, 2000; Jo and Kim, 2003; Xiao et al., 2013). Han(2000)의 국립공원 방문객의 자연환경태도 측정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친환경적인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Shon and Samarasinghe(2012)의 연령별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에서는 30대 초반 이하의 젊은 층이 중장년층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낮은 우려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Yoon and Yang(2015)의 연구에서 한국 소비자의 경우 25세 미만, 25~30대, 40대 이상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친환경 행동도 높아졌다. 따라서 가야산

Table 1.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Factor	Item No.	Domain	Factor loading	Explained variance	Explained %
Anthropocentric items	X7	flora/fauna-	.815	2.198	27.477
	X8	con/del-	.806		
	X3	soil-	.721		
	X4	noise-	.562		
Ecocentric items	X2	water+	.750	2.193	27.416
	X1	air+	.750		
	X5	waste+	.704		
	X6	resource+	.692		
Total					54.893
KMO=.673, Bartlett's $\chi^2=550.233$ (p=.000)					

+ : positive, - : negative, con/del : conservation vs. development,

국립공원의 이해집단에서도 연령에 따라 환경태도의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검증해본다.

#### 3.4.3. 가설 3: 지역주민의 직업에 따른 환경태도의 차이가 유의할 것이다.

내장산 국립공원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Yang and Ahn(2008)과 설악산 국립공원의 탐방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Kim(2014)의 연구에서 공무원의 환경태도 수준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환경태도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따라 높은 수준의 환경태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어 가야산 국립공원의 경우도 지역 공무원의 환경태도 수준이 타 직업 종사자들 보다 높을 것으로 가정한다.

#### 3.4.4. 가설 4: 탐방객의 환경태도 수준이

지역주민의 환경태도 수준보다 높을 것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우 탐방객의 환경의식이 지역주민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Kim, 2014),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의 경우 주민수입과 소득을 위해서 환경을 개발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제중심적 관점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지역주민이 탐방객보다 인간중심적 환경태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로 한다.

#### 3.4.5. 가설 5: 사찰 스님의 환경태도 수준이 다른

이해집단의 환경태도 수준보다 높을 것이다.

사찰 스님을 대상으로 한 환경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가 없었지만 대부분의 사찰이 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명을 중시하고 물질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교리를 갖고 있으며, 또한 불교 사찰이 보여준 자연에 대한 순응과 조화의 독특한 문화 자원과 경관적 특성은 다른 어떤 이해집단보다 높은 환경태도 수준을 가질 것이다.

## 4. 결과 및 고찰

### 4.1. 측정도구의 재검증

Woo(2003)가 개발한 8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의 재검증을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coefficient alpha 값이 0.703으로 나타나 기준치 0.7 이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충족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인간중심적 4문항과 환경중심적 4문항으로 구성된 두 개의 요인이 나타나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Table 1). 이는 Woo et al.(2017)이 수행한 주왕산 국립공원의 연구에 이어 가야산 국립공원의 연구에서도 8문항으로 구성된 Short form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재차 입증되었다.

### 4.2. 인적특성

탐방객 중 남성(56.1%)의 비율이 여성(43.9%) 보다 높았다. 연령은 50대(30.3%)가 가장 많으며 중장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성별은 남성(57.3%)이 여성(42.7%)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Table 2. Personal data

Group	Gender		Age		Occupation				
	N	%	N	%	N	%			
Visitors	Male	60	56.1	10s	7	6.4	Business	20	18.3
	Female			20s	21	19.3	Professional	12	11.0
				30s	12	11.0	PST	5	4.6
				40s	19	17.4	AFL	9	8.3
				50s	33	30.3	Student	15	13.8
				over 60s	17	15.6	Housewives	19	17.4
				Office worker	10	9.2			
				Sales personnel	5	4.6			
	Total	109		Others	14	12.8			
	Residents	Male	47	57.3	10s	3	3.7	Business	54
Female				20s	11	13.4	Bank employees	8	9.8
				30s	5	6.1	PST	20	24.4
				40s	28	34.1			
				50s	28	34.1			
Total		82		over 60s	7	8.5			
Buddhist monks	Male	43	100	20s	7	16.3			
				30s	17	39.5			
				40s	10	23.3			
				50s	9	20.9			
Total	43								
KNPS staff	Male	23	56.1	20s	4	9.8			
	Female			30s	11	26.8			
				40s	8	19.5			
				50s	14	34.1			
	Total	41		over 60s	4	9.8			

PST: Public service&Teacher, AFL: Agriculture, Forestry & Livestock industry, KNPS: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연령은 40대(34.1%)와 50대(34.1%)가 많았다. 탐방객의 직업은 자영업(18.3%), 주부(17.4%)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직업은 비슷하게 분포하였다. 지역주민의 직업은 자영업(65.9%), 지역 공무원(24.4%), 지역 농협(9.8%)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도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은 50대(34.1%)와 30대(26.8%)가 많았다. 사찰 스님의 경우 조사대상의 특성상 성별은 모두 남성이었고, 연령은 20대~50대로 분포하였고, 30대(39.5%)와 40대(23.3%)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 4.3. 가설검증 결과

#### 4.3.1. 가설 1 검증: 여성의 환경태도 수준이 남성의 환경태도 수준보다 높을 것이다.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야산 국립공원 이해 집단의 성별에 따른 환경태도는 탐방객, 지역주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모두에서 여성의 환경태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탐방객, 지역주민:  $p < .001$ , 국립공원관리공단:  $p < .05$ ). 탐방객의 성별에 따른 환경태도의 수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Kim, 2011; Woo et al., 2017)도 있었지만 다수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환경태도 수준이 남성의 환경태도 수준보다 높았고(Brecker, 1984; Kim and Woo, 2004; Yang and Ahn, 2008; Gifford and Sussman, 2012; Kim, 2014)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environmental attitude by gender

Group	Gender	M(SD)	t
Visitors	Male	3.59(.551)	-2.990**
	Female	3.89(.496)	
Residents	Male	3.40(.624)	-3.096**
	Female	3.81(.559)	
KNPS staff	Male	3.96(.520)	-2.047*
	Female	4.25(.329)	

KNPS: Korea National Park Service, \*p<.05, \*\*p<.001

#### 4.3.2. 가설 2 검증: 연령에 따라 환경태도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야산 국립공원의 탐방객(F(5,103)=5.72, p=.000)과 사찰 스님(F(3,39)=4.13, p=.012)의 경우 연령에 따른 환경태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Table 4), 다른 이해집단에서는 연령에 따른 환경태도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일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20대, 30대, 40대의 환경태도 수준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Table 4). 기존 연구에서는 젊은 연령층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으며(Zhang, 1992; Yoon and Yang,

**Table 4.** Comparison of environmental attitude by age

Group	Age	M(SD)	F	Duncan test
Visitors	over 60s	3.33(.520)	5.724***	A
	10s	3.55(.483)		A
	50s	3.58(.365)		A
	40s	3.91(.592)		B
	20s	3.95(.486)		B
	30s	4.10(.474)		C
Buddhist monk	50s	3.29(.375)	4.132*	A
	30s	3.86(.711)		B
	20s	4.13(.515)		B
	40s	4.19(.586)		B

\*p<.05, \*\*p<.01, \*\*\*p<.001

2015), 연령이 낮을수록 환경의식이 높다(Yang and Ahn, 2008; Kim, 2014)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또는 높을수록 높아진다 또는 감소한다는 일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적어도 가야산 국립공원의 사례에서는 주로 20대, 30대, 40대의 환경태도 수준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 결론은 추후의 연구사례를 통해 계속 검증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4.3.3. 가설 3 검증: 지역주민의 직업에 따른 환경태도의 차이가 유의할 것이다.

Table 5와 같이 지역주민의 직업에서 환경태도의 차이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3,187)=7.87, p=.001), 탐방객은 직업에 따른 환경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주민의 경우 은행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지역 공무원 보다 높은 환경태도를 보였다. Yang and Ahn(2008)의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와 공무원의 의식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업적으로 높은 수준의 환경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공무원이 환경태도가 가장 낮은 그룹으로 나타났고 자영업과 은행 직원의 환경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공무원은 지역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대부분 경찰, 소방 공무원의 응답자가 많아 이들의 직업적 특성상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환경친화적 태도보다 치안, 질서유지, 단속, 소방, 방재 등의 영역에 더 많은 관심과 태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Comparison of environmental attitude by occupation (residents)

Occupation	M(SD)	F	Duncan test
PST	3.13(.502)	7.873**	A
Business	3.71(.605)		B
Bank employees	3.78(.585)		B

\*p<.05, \*\*p<.01, PST: Public service&Teacher

4.3.4. 가설 4 검증: 탐방객의 환경태도 수준이

지역주민의 환경태도 수준보다 높을 것이다.

가야산 국립공원의 탐방객(M=3.72, SD=.546)과 지역주민(M=3.58, SD=.628)의 환경태도(t=-1.683, p=.094)에서 탐방객의 환경태도 점수가 다소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Kim(2014)은 설악산 국립공원의 탐방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의식 조사 결과, 탐방객의 환경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탐방객이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체라는 주장(Ryu et al., 2016)도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탐방객과 지역주민 모두 평균 이상의 환경태도 수준을 보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Woo et al.(2017)의 주왕산 국립공원의 연구사례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립공원의 보호보다는 개발과 이용을 더 선호하여 환경태도 또한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역주민들은 외부 자본 또는 외부 인력의 유입에 대해 경계하며 개발보다는 보전에 대한 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에 환경태도에 대한 성향이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된다(Woo et al., 2017). 이에 가야산 국립공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적절한 개발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의견 충돌과 갈등보다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3.5. 가설 5 검증: 사찰 스님의 환경태도 수준이 다른 이해집단의 환경태도 수준보다 높을 것이다.

가야산 국립공원의 이해집단 간 환경태도 수준의 차이를 보기 위해 ANOVA와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Table 6에 표시하였다. 가야산 국립공원의 이해집단은 3가지 그룹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가장 높은 환경태도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M=4.09), 두 번째 높은 그룹은 사찰 스님(M=3.86)이며 탐방객(M=3.72)과 지역주민(M=3.58)은 같은 수준의 동일 집단으로 묶여(Table 6, Duncan test A그룹) 가장 낮은 환경태도 수준을 보였다(F(3,271)=7.643, p=.000). 따라서 사찰 스님 그룹이 가장 높은 환경태도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는

가설 설정에서 불교 사찰 스님의 경우 자연과 생명의 존중 그리고 무소유의 교리와 수련을 통해 최고 수준의 환경태도 수준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국립공원 지킴이의 직업적 철학과 가치관을 선택하여 국립공원을 보호하여 미래 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과 직업의식이 투철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가장 높은 환경태도 점수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우선 잠정적인 결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다른 여러 연구사례에서 재검증하여 명확한 결론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Comparison of environmental attitude among interest groups

Group	M(SD)	F	Duncan test
Residents	3.58(.465)	7.643***	A
Visitors	3.72(.664)		A
Buddhist monks	3.86(.628)		B
KNPS staff	4.09(.546)		C

KNPS : Korea National Park Service, \*p<.05, \*\*p<.01, \*\*\*p<.001

5. 요약 및 결론

가야산 국립공원의 이해집단 간 환경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사찰 스님, 탐방객, 지역주민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각 집단별 환경태도 차이를 확인하고자 5가지의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였다.

1) 가야산 국립공원의 이해집단의 환경태도에서 탐방객, 지역주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서 모두 여성의 환경태도 수준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탐방객, 지역주민: p<.001, 국립공원관리공단: p<.05).

2) 연령에 따른 환경태도는 일정한 경향성이 없었으나 탐방객(F(5,103)=5.72, p=.000)과 사찰 스님(F(3,39)=4.13, p=.012)의 경우 20대, 30대, 40대의 환경태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탐방객의 직업에 따른 환경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주민(F(3,187)=7.87, p=.001)의 경우 공무원, 은행 직원, 자영업자 사이의 환경태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공무원(M=3.13)

이 자영업자(M=3.71) 및 은행 직원(M=3.78)보다 환경태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4) 가야산 국립공원의 지역주민의 환경태도 수준과 탐방객의 환경태도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가야산 국립공원 이해집단 간의 환경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총 3개의 그룹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환경태도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사찰 스님이 높았고, 탐방객과 지역주민이 가장 낮은 그룹으로 나타났다( $F(3,271)=7.643, p=.000$ ).

가설4에서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환경태도 수준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집단에서 보통 이상의 환경태도 수준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가야산 국립공원의 이해집단별 환경태도의 비교 분석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가야산 국립공원의 적극적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정책적 목표에 대한 이해집단 간 갈등의 소지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는 보다 적극적이고 한층 강화된 가야산 국립공원의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환경태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보호와 개발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갈등 보다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보호와 엄격한 개발 규제의 도입이 가능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고 수준의 환경태도를 보인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과 상당한 비중과 영향력을 지닌 사찰 스님들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이 뒷받침되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REFERENCES

- Ahn, C. H., Byun, B. S., 2013,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visitors' ecotourism and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awareness, *J. Environ. Pol. Admin.*, 21, 97-124.
- Brecker, S. J., 1984, Empirical validation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as distinct components of attitude, *J. Pers. Soc. Psychol.*, 47, 1191-1205.
- Cheong C, 2007, The effects of Knowledge, beliefs and attitudes about environmental on issue-based environmental problem solving in middle schools, *Kor. J. Environ. Educ*, 20, 118-130.
- Dunlap, R. E., Van Liere, K. D., 1978, The "new environmental paradigm": A proposed measuring instrument and preliminary results, *J. Environ. Educ.*, 9, 10-19.
- Dunlap, R. E., Van Liere, K. D., Mertig, A. G., Emmet Jones, R., 2000, Measuring endorsement of the new ecological paradigm: A revised NEP scale, *J. Soc. Issues*, 56, 425-442.
- Fishbein, M.,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ddison Wesley Publishing Co., Massachusetts, 1-89.
- Gifford and Sussman, 2012, Environmental attitude, in: Clayton, S. D.(ed.), *The Oxford Handbook of Environmental and Conservation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65-80.
- Han, S. Y., 2000, Measuring the environmental attitudes for National Park visitors: Application of new environmental paradigm, *J. Kor. For. Soc.*, 89, 598-608.
- Jang, W. J., 2001, Designing a likert-type scale to measure nuclear energy attitude, M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51.
- Jo, Y. A., Kim, K. H., 2003, Environmental consciousness in Korea: Empirical analysis, *Environ. Res. Econ. Rev.*, 12, 177-204.
- Kim, E. Y., Lee, J. A., Kim, H. G., Chon, J. H., 2014, The visitors characteristics of urban ecological park-The cases of Gildong ecological park, Yeouido tributary ecological park, *J. Kor. Inst. Landsc. Archit.*, 42, 64-74.
- Kim, J. E., Woo, H. T., 2004, Characteristics and variables of nuclear energy attitudes of social groups, *J. Environ. Sci.*, 13, 955-963.
- Kim, J. M., 2014,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perceptions of the interest groups in the protected areas: focused on Seoraksan National Park, *Kor. J. Env. Eco.* 28, 779-778.
- Kim, K. S., 2017,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environmental attitude/knowledge on environmentally friendly behavior for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campus, *J. Environ. Pol. Admin.*, 25, 95-118.
- Kim, S. H., 2015, An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residents' perception of tourism impact, environmental attitude and participation: Focused on Keumkang pine tree forest trail, *J. Kor. Geogr. Soc.*, 50, 339-354.
- Kim, S. O., 2011, Visitors' perceptions and attitudes about



- establishing a cable car in Mudeungsan provincial park, *Kor. J. Env. Eco.*, 25, 421-431.
- Kum, J. H., Kim, J. M., 2009, The validation of NEP scal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Kor. J. Environ. Educ.*, 22, 40-52.
- 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16, <http://research.knps.or.kr>.
- 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7, <http://www.knps.or.kr>.
- Ryu, D. G., Park K. S., Kim, T. H., 2016, An Analysis on the differences in national park visitors' pro-Environment behavioral intention and support for national park managerial policies by personal norm, *Int. J. Tour. Hosp. Res.*, 30, 197-210.
- Shon, C., Samarasinghe, S., 2012, Age and attitude toward climate change in Seoul, Korea, *Kor. Spat. Plann. Rev.*, 74, 221-232.
- Van Liere, K. D., Dunlap, R. E., 1980, The social bases of environmental concern: A review of hypotheses, explan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ublic Opin. Q.*, 44, 181-197.
- Woo, H. T., 2003,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attitude scale for Korea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 Environ. Sci.*, 12, 763-774.
- Woo, H. T., Han, J. G., Jeon, E. J., 2017, Comparison of environmental attitude between interest groups in Juwangsang National Park, *J. Environ. Sci. Int.*, 26, 1147-1153.
- Xiao, C., Dunlap, R. E., Hong, D., 2013, The nature and bases of environmental concern among Chinese citizens, *Soc. Sci. Q.*, 94, 672-690.
- Yang, J. I., Ahn, D. S., 2008, An Analysis on the environmental ethics and the environmental consciousness of visitors in Naejangsan National Park, *J. Kor. Inst. For. Recreation*, 12, 21-29.
- Yoon, S. W., Yang, Y. J., 2015, A Difference analysis among nationality, gender and age regarding environmental conscious behavior, *J. Kor. Ac. In. Coop. Soc.*, 16, 5089-5095.
- Zhang, J., 1994, Environmental hazards in the Chinese public's eyes, *Risk Analysis*, 14, 163-167.